

# ‘답보 상태’ 광주 남구 달외마을 재개발 ‘파란불’

## TF 회의 통해 새마을 사업비 반환·일부 반대 해결 남구 “이달 중 조합원 모집 신고 조건부 승인” 결정

광주 남구가 달외마을 재개발을 위한 월산더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4차례에 걸친 TF팀 회의를 통해 월산더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원 모집 신고를 이달 중 승인하기로 했다. 월산더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결성 후 같은 해 7월 남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까지 했으나, 1년 가까이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 이유론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우선 남구가 지난 2015-2021년 월산동 335-9번지 일원 달외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쓴 71억9천500만원(국비 50억2천200만원·시비 6억4천600만원·구비 15억2천700만원) 대부분이 재개발로 인해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상황이었다. 또 재개발 추진 부지 내 24세대 중 소규모 필지에 실거주하는 3세대(60㎡ 이하 1세대, 100㎡ 이하 2세대)가 아주 대책을 촉구하며 반대를 표해 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재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구는 지난 6월 달외마을 주민, 남구 관계자 등 13명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달외마을 현황조사 및 분석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 ▲정주환경 및 주거실태 현장 점검 ▲반대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TF는 72억원에 달했던 새마을 조성사업 비용을 재개발 부지 내외에 커뮤니티센터, 공유주차장, 시민공원을 만든 후 기부채납 형식으로 반환하겠다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

하기로 결정했다. 또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진위원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 온 소규모 필지 거주 세대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 및 실질적인 거주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남구는 조합원 모집 신고 승인을 이달 중 해하기로 결정했다. 최홍룡 월산더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사는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달외마을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측에서 소수 주민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협조를 약속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외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현재까지 실제로 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 대부분이 오래됐고 가파른 언덕에 비좁은 골목 등 정주여건이 열악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주성학 기자

## 지산동 지주택 ‘이중 분양’ 사기 가담자들 징역형

### 4명 중 1명만 징유... 나머지는 징역 1년6개월~6년 실형

‘이중 분양’ 사기를 눈 감아준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장과 범행을 주도한 업무대행사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3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년 등의 실형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징유형에 3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

합의 조합원 모집 대행 역할을 한 업체의 본부장으로, 해당 조합의 추진위원장 등이 가담한 ‘이중 분양’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계약서에 명시된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조합추진위 계좌로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들의 계약금을 받아 공범들에게 준 뒤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중 지산동지역주택조합장 B(50)씨도 포함됐는데, 그는 이중분양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발을 미루는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다른 지

주택 업무대행사 계약에도 관여해 3천여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또 자기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매매 대금을 증액,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3천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신뢰가 저해됐고,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억원을 편취했음에도 회복하지 않고 무죄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B씨는 조합장의 지휘를 이용해 자신의 아파트를 더 비싸게 조합에 매도하는 등 사리사욕을 채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 ‘철거업체 부당 선정’ 현산 9월27일 선고

### 지난 5월 이후 두 차례 미뤄져... 1심 결론 전망

붕괴 참사가 발생했던 광주 학동 4구역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 행위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과 관련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는 9월 이뤄진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현산 직원 A(50대)씨, 한솔기업 대표였던 B(50대)씨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동구 학동 4구역 주

택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하청 계약을 맺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현산과 A씨가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것과 달리 B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지난 5월 검찰은 현산에 벌금 1억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변론 재개와 재판부 변경 등으로 선고가 두 차례 미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결심까지 모두 마쳐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1심 징유 선고 교통사고 피의자 피해자 사망 항소심서 가중처벌 보행자를 차로 친 운전자가 1심 선고까지 피해자가 살아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망해 가중 처벌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8개월·징유형에 2년을 선고받은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완도군 한 부두 인근에서 11호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70대)씨를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2년여 만인 지난 4월 사망했다. /안재영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17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서이초 사건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은 2년차 신규 교사가 지난 해 7월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애리 기자

## 檢, ‘이웃 살해’ 조현병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 2명 상해 입히기도... 내달 16일 선고

검찰이 이웃 주민에게 주먹과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6시 13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에서 나체로 활보하다 이웃 주민 3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A씨에게 지팡이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 당한 한 명은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에는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건 맞지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폭행했음에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치료 감호를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죄송하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진행 된다. /안재영 기자 전남농협 모 지부장 대기발령 부지부장도...금감원 2차례 검사후 조치 농협중앙회 전남 서부지역 A지부의 지부장과 부지부장이 동시에 대기발령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 초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이 전남 서부지역 A지부의 지부장과 부지부장에 대해 대기발령 인사를 했다. 대기발령 조치가 있기 전 A지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차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발령이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정해선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b>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b>	<b>매일/9시~</b>
<b>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b>	<b>수시접수</b>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